

#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문제와 해결방안

2008.10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  
권 광 택

# 제 출 문

본 보고서를 『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문제와 해결방안』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.

2008년 10월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  
권 광 택

# 목 차

- 제1장 서 론 .....
  - 1. 연구의 배경 .....
    - 2. 문제의 제기 .....
  
- 제2장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교육문제 .....
  - 1.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 .....
  - 2. 다문화가정의 교육문제 .....
  
- 제3장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 .....
  - 1.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: 뒤처지는 아이들 .....
  - 2.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 : 방치되는 아이들 .....
  
- 제4장 다문화가정 교육문제 해결방안 .....
  - 1.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배려 : 외국의 사례 .....
  - 2. 교육격차의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언 .....
  
- 제5장 결론 및 제언 .....
  - 1. 결 론 .....
  - 2. 제 언 .....

# 제1장 서론

## 1. 연구의 배경

### ■ 한국체류 외국인의 증가

- 시민권을 가진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
  - 1990 : 1억2천 만명 → 2000 : 1억6천만 명
  - 10년 사이 약 33%가 증가(Martin, 2002)
- 국제 이주의 대부분은 선진 개발국으로 이주
  - 세계 인구의 80%를 점하고 있는 저개발국에서
- 1995년 27만 명에 불과하던 한국체류 외국인 수
  - 2005년 74만 명으로 증가(법무부, 2006)
- 2007년에는 1,066,291명(2006년 910,149명 17.2% 증가) → 체류 외국인 100만명

### ■ 다민족·다문화 사회 진입

- 외국인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목적
  -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취업
- 고령화·저출산으로 생산활동 인구의 감소
  - 3D업종 기피로 인한 중소기업인력 부족
  - 외국인의 증가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

→ 우리나라는 이미 다민족·다문화 사회 진입
- UN '대체 이주에 관한 보고서(Replacement Migration, 2000년)

- 한국의 경제활동인구 : 최대 수준 3,660만 명
- 2020년부터 2050년 사이에 모두 640만 명
- 매년 21만3,000명의 외국인 노동자 필요
-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국내로의 유입과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폭발적인 증가
  -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문제 대두
- 충청북도 결혼 이민자의 현황(06년도 출입국관리 통계) :
  - 총 2,891명으로 여성이 2,702명
- 올해(2008년) 3월말 현재 이들 자녀들이 초·중·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수
  - 993명 2007년 725명보다 무려 27% 증가
- 불법체류로 인한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미취학의 정도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
-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
  - 언어능력 부진과 이로 인한 학습부진
  - 학교부적응과 결과적으로 중도탈락
  - 집단 따돌림, 정체성 혼란 및 정서장애 등
-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가정 대부분이 경제적·사회적 기반이 취약
  - 그 자녀가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음
- 한국사회에 정착한 외국인 노동자 자녀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대들, 이미 10대가 되었거나 다문화 사회로 진입
- 그들의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대책이 미흡, 또한 이들에 대한 인권은 물론 이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현실적 제도나 다문화를 수용하려는

의식이 아직도 미비

- 다문화사회,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학교현장은 물론 사회에서 아직도 생소한 것이 현실

## 2. 문제의 제기

### ■ 다문화가정의 문제

- 한국사회의 농·산·어촌의 소득수준 및 교육환경을 감안
  -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경쟁에서 낙오되는 계층집단으로 형성될 것
- 프랑스의 차별에 저항하는 이민자들
  -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를 일으킴
  - 프랑스 사회 내부 및 국제 시선의 우려
- 한국에서도 2008 중국 베이징 올림픽
  - 성화 봉송으로 인한 폭력 사태가 벌어짐
  - 이는 한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줌
- 프랑스는 표면상
  - 각종 사회통합정책을 벌였지만 실패하면서 소요사태로 귀결
- 우리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회통합의 성숙한 제반여건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일 필요
-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로 떠나는 이농현상 등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막는 대책에 치중
  - 이주여성 정착 위한 지원, 2세인 혼혈아 문제 방치
- 자녀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소외와 교육문제는 심각
- 교육청
  -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2세 자녀들의 증가

-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안내지침이 전무한 실정

### ■ 다문화이해교육의 요청

- 한국사회가 이미 다문화사회로 변화하고 있음을 인식
-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문화적 이해교육이 필수
-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미래세대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초·중등 학교교사의 다문화교육 요청
-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
  -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다문화이해 교육이 우선

## 제2장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교육문제

### 1. 다문화가정의 개념과 유형

#### ■ 다문화가정의 개념

- 통상적으로 현재 국내에 정주하고 있는 국제결혼가정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외국인노동자가정을 포함
- 다문화가정의 자녀
- 혼혈아동을 부르는 명칭 : 혼혈아, 코메리칸, 아메리시안, 아이노꼬, 코시안 등이 사용됨
- 이들 모두 '다문화가정 자녀' 여기에 외국인이주노동자자녀 포함
- 한국사회에 있어 다문화가정이 이루어지는 구조
  - 보통 저개발국에서 밀려오는 외국인노동자들과
  - 국제결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
- 아시아계 여성들의 국내유입으로 성립
- 2003년 건강가정시민연대 (3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)
- '국제결혼', '혼혈아' 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고 대신
  - '다문화가족'이나 '다문화가족 2세'로 부르자고 제안
- 국제결혼가정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자
  - 다문화가정(족)이라 고쳐 부르게 됨
- '혼혈아, 코메리칸, 아메리시안, 아이노꼬, 코시안' 등
  - 우리와는 혈통이 다르다는 부정적 의미가 내포
- 외국인이주노동자가정은
  - 같은 국적 사람들과 결혼한 가정도 있고



-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(예 : 이란 남편, 레바논 부인)
- 한국에서 결혼하여 살고 있는 경우도 있음
- 각자 자신들의 모국의 문화에다 정주국인 한국의 문화를 더해 이중문화, 삼중문화의 틀 속에 살고 있음
- 이들을 다문화가정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

## ■ 다문화가정의 유형

- 다문화가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
  - 결혼이민가정
  - 외국인이주노동자가정
- 외국인이주노동자가정은
  - 국제결혼가정 : 한국인과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결혼으로 형성된 가정
  - 외국인이주노동자가정 : 외국인이주노동자로 국내에 유입되어 외국인 이주노동자간에 결혼하여 형성된 가정
- 이미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
  - 국내에 외국인이주노동자로 이주한 이주가정

## ■ 다문화가정의 문제점

- ①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인식의 차이
  - 가족 공동체에서 이중문화의 존재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게 되어
  - 고통과 긴장,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발생
- ② 언어의 소통에서 오는 문제
  - 국제결혼 가정에서는 언어의 소통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를 다 표현할 수가 없음
- ③ 결혼의 목적에서 오는 갈등

- 종교적 이유, 경제적 목적, 혹은 호기심에 의하여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하여 쉽게 싫어질 수 있음

#### ④ 자녀교육의 문제

-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은 부모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풍습으로부터 어떤 것을 따라야 할지 혼돈을 겪을 수 있음

## 2. 다문화가정의 교육문제

### ■ 외국인근로자 자녀교육

-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유형
  - 양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이주한 경우
  - 편모 혹은 편부 가정
  - 모가 한국인 부와 재혼한 경우
  - 그리고 자녀 혼자 체류하고 있는 경우
-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 아동들은 부모의 국제노동력 이동에 따라 입국, 부모가 먼저 한국에 입국해서 정착한 후 자녀들을 입국시키는 경우
  - 그 이유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서
  - 본국에서 일을 하기 시작할 나이가 된 자녀(한국에서는 미성년이지만) 노동을 위해
-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게 학교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과 관련 지침 제공에도 불구하고 학령기 외국인 근로자 자녀 대부분이 학교 밖에 있음
- 등록 외국인(불법체류 포함) 중 취학 연령대인 7세 이상 18세 이하는 17,287명으로 추정(교육인적자원부)
-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있는 학령기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약 9,500

## 명으로 추정

- 국내 학교 재학생은 1,574명에 불과
- 부모가 한국에 먼저 와 있는 경우 본국에 직접 가서 자녀를 데려오기는

## 힘듦

- 브로커에게 의뢰하여 자녀를 입국시킴
- 브로커는 아동의 여권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본인의 자녀인 것처럼

## 꾸며 동반여권을 만듦

- 이런 아동은 자기 본명을 쓰지 못하며
  - 나이는 물론 때로는 성별조차 바뀌는 경우
- 신분증이 없는 아동이 후에 출국하거나 학교에 입학하려 하면 상당히 곤

## 란한 처지

- 입학에 필요한 최소한의 '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'나 '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'가 없기 때문

- 부모와 함께 입국한 자녀들은 부모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

- 부모와 별도로 입국한 자녀들은 부모들의 직장 근무 때문에 자신들끼리 적응하는 경우가 많음

- 같은 지역에 사는 모국 친구들이나 일요일에 외국인노동자들이 다니는 교회나 이주노동자상담소에서 만나는 친구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안내 받음

-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경우
  - 몇 달 동안 외출하지 못하고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본 아동도 있음
- 한국사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출입국 사실 증명서나 외국인 등록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
-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5월 학교 입학 시

- 해당 지역의 거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(전월세 계약서, 거주확인 인  
우보증서)로 대신할 수 있도록 배려

- 국내 학교에 재학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수가 크게 증가

• UN은 국제협약을 제정

-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(International  
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 
Their Families)

-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의 체류 내지 취업이 불법이거나 그 자녀의 체  
류가 불법이라도 그 자녀는 그 나라 국민과 같이 평등한 처우에 기초하여 교  
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천명

•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의 어려움

첫째, 언어 능력 부족으로 말미암아 학습부진의 정도 심각

둘째,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

셋째, 집단따돌림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 경험

•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에서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 
것 : 한국어 능력에 따른 학년 배정

•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이에 따라 학년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

- 한국어 능력 중심으로 학년을 배정

- 2~3세살 어린 같은 반 한국학생에게 반말을 듣거나 성적이 낮게 나  
와 상처를 받기도 하며

- 자신의 의사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학급 생활에 적극적으로 임  
하지 않는 경향

• 나이 어린 학급 동료와의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어 장기적으로 학교  
를 결석하는 사례가 발견되기도 함

•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8,000여명의 아이들의 교육문제 또

## 한 시급

- 이들 대부분이 현재 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있거나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
- 재학연령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조사에 의하면
  - 응답자의 35%가 '돈을 벌기 위해' 학교에 입학하지 않음

## ■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교육

- 1980년대부터 종교단체(통일교)를 통해 일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시작
- 1990년대 초 한중 수교 이후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의 결혼 이주가 활발히 진행
  - 이는 조선족들의 취업이주와 한국의 농산어촌 총각들의 결혼문제와 맞물려 국제결혼이 증가
- 199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, 태국, 몽골 등 외국인 아내의 국적이 확대
- 최근에는 베트남과 구소련 등으로 다변화
  - 2003년 7월 1일에 한중 양해각서 폐지
  - 한중 일방국가에서 혼인등기(신고) 가능
  - 중국인과의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
- 문제는 한국사회에 정착한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이
  - 벌써 10대가 되었거나, 다문화 사회로 진입
- 그들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대책 미흡하다는 것이 문제
- 2008년 3월 31일까지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
  - 총 115,113명이 가정을 이룸
  - 남자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
- 충청북도의 경우 결혼이민자 수의 총계 : 3,589명
  - 남자가 217명인데 비해 여성은 3,372명

- 충북에 정착한 결혼이민자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무려 16배 가까이 높음
- 여성 결혼 이민자의 경우
  - 본국에서는 대부분 중산층
  - 학력에서도 고졸이상이 50% 전문대 이상도 22%
- 한국사회에서 교육기회는 소득수준과 비례한다고 보았을 때,
  - 다문화가정의 2세 교육문제는 교육소외계층 문제로도 인식할 수 있음
- 이들의 경우 자녀를 보육원에 보내려 해도
  - 가정 형편상 어렵고
  - 자녀 교육문제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어도
  - 소수에 그쳐서 이러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현실
- 한국사회의 배타의식으로
  - 집안 식구로부터의 배척
  - 주위사람들의 시선 등으로
-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은 소외감과 정신적 긴장감, 고독과 긴장의 연속에 살아가게 됨
- 향후 이들이 한국사회의 한 일원으로써 중요한 인적자원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교육문제는 시급
- 결혼이민자 자녀교육의 문제점
  - ① 언어소통 장애에서 오는 부적응: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
  - ② 부모의 가치관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 가치관의 혼돈 때문에
  - ③ 혼혈인에 대한 편견으로 부적응 유발 순수한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

## 제3장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

### 1.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: 뒤쳐지는 아이들

#### ■ 농어촌, 도시 저소득층 국제결혼 자녀의 문제는 교육

- 첫째,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문제는(농어촌, 도시지역의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)

- 그 중에서도 특히 외국인 어머니를 둔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야 함
- 일반적으로 자녀교육은 아버지에 비하여 어머니가 자녀 양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

- 자녀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

-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

- 둘째, 여성 결혼 이민자의 거주지는 도시와 농촌 비율이 3:1 정도

- 중요한 문제: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

- 한국 사회의 농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실태를 감안한다면 농어촌 지역에서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문제가 역시 시급한 문제

- 2004년의 경우, 농어촌 지역에 사는 남자 1,814명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

- 농어촌지역 전체 결혼 건수(6,629건)의 27.4%에 해당하는 것(농어촌 총각 4명 가운데 1명은 외국인 여성을 신부로 맞이하고 있는 셈)

- 농어촌지역으로 시집 온 외국 여성의 국적은 중국이 879명으로 가장 많으며, 베트남이 560명, 필리핀이 195명으로 분포

- 농어촌지역은 어머니가 외국인인 비율이 90% 이상

- 부모의 국적별 비율은 일본 41%, 중국 22.3%, 필리핀 14%

- 교과부 관계자 "부모 중 한쪽이 일본인인 경우는 통일교 가정이 대부분이며, 그 외는 농촌지역의 다문화 가정"

## ■ 학교에서 뒤처지는 결혼이만자의 자녀들

- 첫째,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각
  -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
  -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음
  - 언어능력 부족은 학습 부진을 초래
- 대체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
  -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큰 문제 없음
  - 독해와 어휘력, 쓰기, 작문 능력이 저하

• 둘째,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

• 많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

• 사례 : "조선족은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니거든요.

그 가운데서 이 문화도 저 문화도 아닌 조선족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. 한국문화를 완벽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.

그러니까 생각이나 사상이 많이 다른 상황이거든요."(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어느 중국 조선족)

• 셋째, 집단따돌림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

•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

• 이 수치는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비율인 13.4%와 거의 유사함

• 전국 초등학교 4~6학년 3,507명을 조사 : 대상자의 13.4%에 해당하는 학



생이 '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경험

- 우리나라 학생이 경험하는 집단 따돌림과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가 경험하는 그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름

-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,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주된 이유

- '잘난 척해서'가 29.4%인 반면,

-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그 성격상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라는 이유

- 넷째, 미진학 및 중퇴자의 속출

- 여러 가지 자료와 인터뷰 과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,

- 국제결혼가정 자녀는

- 10명 중 1명꼴로 초등학교를 미진학 및 중퇴

- 10명 중 2명 정도 중학교 미진학 및 중퇴자

## ■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

-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교 진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

- 교육적인 면에서 이들을 돕기 위한 시도 교육청 차원의 움직임은

- ① 부모(특히 외국인 어머니)를 대상으로 한국문화 교육, 한글교육

- ②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교육, 상담, 보충학습

- ③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타문화이해 교육

## 2.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자녀 : 방치되는 아이들

### ■ 학교교육권 밖에 방치된 8,000여명의 청소년

- 첫째, 등록 외국인(불법체류 포함) 중 취학 연령대인 7세 이상 18세 이하

는 17,287명으로 추정(교육인적자원부 내부 조사 자료)

- 이중 외국인학교 재학생 7,800명을 제외
  - 국내학교 유입 가능 인원은 약 9,500명
- 국내 학교 재학생은
  - 1,574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
- 8,000여명이 학교교육권 밖에 방치
- 둘째,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자녀를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
- 거주지의 불안정, 경제적 어려움, 신분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자녀를
  -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향
- 표본 조사에 의하면,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로는
  - '돈을 벌기 위해서' (35%), '한국말을 못해서'(20%)
  - '불법체류 아동이기 때문'(15%)

## ■ 학교 안에 있는 1,500여명 아이들의 문제들

- 첫째, 심각한 언어 문제 중
  - 외국인 아동이 학교에서 겪는 문제 :
  - 언어의 문제 56%
  - 낮은 성적이 16%
  - 따돌림, 구타, 교우 문제 20%
  - 생활 수준의 차이 4%
- 둘째, 이와 관련되는 문제
  - '모국에 대한 긍지의 상실'
- 특히 외모가 외국인으로 판단이 안 되는 외국인노동자 자녀의 경우 한국 생활에 적응해가면서 자신의 국적을 창피해하며 숨기려는 경향

- 셋째, 나이와 맞지 않는 '학년 배정의 문제 '
- 학년 배정의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중요한 장애요인

### ■ 자녀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

- 자녀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를 대비 모국어를 가르치는 부모들이 많음
-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음
  - 자녀교육을 위해 체류하는 외국인이 있을 정도로 적극적
- 외국인 노동자 가정에서
  - 부모의 절반 이상인 51.1%가 자녀가 4년제 대학까지 진학 희망
  - 고등학교 19.3%, 대학원 박사과정 14.8%

### ■ 민간차원의 활발한 지원 활동

- 종교계에서 설립, 운영하는 단체 전체의 약 90% 정도
  - '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', '성남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 집', '외국인노동자상담소' 등 대표적인 예
- 시민운동단체에서 설립, 운영
  - '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', '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', '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' 등
- '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의료공제회'와 '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터' 등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 또는 염가로 의료, 법률 서비스를 제공
- 교회나 성당 내에 작은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조직을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
- 지원 단체가 하는 활동
  - 운동경기나 축구 등 각종 행사 86.4%, 의료지원사업 76.5%, 소식지 및

출판물 제작 65.4%, 각종 사회단체와의 연대 사업 64.2%, 외국인 근로자 컴퓨터 운영 42.0%

- 외국인 근로자 지원 단체들은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에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
  - 가장 인기 있는 것은 한글교육 85.5%
  - 종교교육 84.3%, 컴퓨터 교육 32.5%

### ■ 대안학교 설립의 움직임

- '광주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' :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
  - 광주전남지역 초중고 교사 300여명 광주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를 운영
  -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를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
  -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(광주시 광산구 고룡동 야산 2,000여 평, 유치원에서 초중고교 교육과정 전체)

## 제4장 다문화가정 교육문제 해결방안

### 1. 교육소의 계층을 위한 배려 : 외국의 사례

#### ■ 미국

- 기본적으로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관련법은 의미가 없음. '불법 이민자 정책'과 관련됨
- 불법이민자: 공적 서비스, 민간 서비스에 수급자격(eligibility)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적 서비스에 접근하기(accessibility)는 매우 어려움
- 임신 여성 및 불법이민자의 아동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있음
- 불법이주 임신여성의 출산과 보호, 자녀의 양육 및 교육 등의 사회복지 권리가 보장됨
- 미국은 비영리기관이 운영 '여성유아아동을 위한 보충적 식품지원 프로그램'(WIC, Supplemental Food Program for Women, Infants, and Children)
- 수혜자 자격 결정은 공공기관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아 외국인노동자 가족의 의료 및 자녀문제를 통합적으로 지원
- 'K-12: 평생 학부모 교육'이라는 화상교육, 가정방문 등을 통해 자녀의 학교 교육을 부모가 충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함
  - K-12: 「kindergarten에서 제12학년[고3]까지」의 뜻
- 무료실비 급식프로그램
- 헤드스타트(Head Start: 조기유아교육)
- 텍사스 주의 의료지원 제공의 제한 완화
- 캘리포니아 대학교육비 혜택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
- 교육소의 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은 연방정부의 주도로 1964년 경제기회보장법을 시작. 성인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

-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학생의 학습을 직접적으로 증진
  - 학교중심 프로그램 이외에도 학생의 건강, 영양상태, 생활조건, 가족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 다양하게 제공
- 프로그램은 학교, 회사, 사회복지단체 지역사회 중심 지역기관과 연계 진행

## ■ 프랑스

- 1981년 이후 '덜 가진 자들에게 더 준다'라는 슬로건 아래 '우선교육지대'를 시행(ZEP:Zone d'éducation prioritaire)
- 이 정책의 주요내용은 지식의 평등한 접근을 위해 ZEP의 특별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보다
  -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가르쳐서 도달할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함
- 모든 지식 습득의 기본으로서의 언어 숙달에 많은 비중을 지원하되,
  - 새롭게 발달하는 매체를 통해 언어적 의사전달뿐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영상교육 강화함
- 만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
  - 만3세부터 유치원에 다니게 함
  - 특히 언어 습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기교육 실시
- 생활환경이 열악한 ZEP의 학생들을 위해 교사교류, 보충수업, 상급학교 방문, 안내책자 배부 등을 통해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돕는 지원
- 공화국의 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시민교육을 실시함
  -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출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병행하여 이루어짐
-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긴밀한 유대가 이루어지도록 함

- 자치단체의 복지, 주택 정책과 연계보다 효과적으로 건강,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체제를 구축
- 우선교육망을 설치하여 우선교육 실행의 경험과 방법 등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위해 상황판 및 학군별 자료관을 설치하여 담당자들 도움

## ■ 독일

- 외국인 근로자 가족의 증가를 예외적 현상이나 단기적 현상이 아닌 세계화 과정에서의 중요하고도 지속적인 현상으로 파악
- '연방이민통합사무소'와 같은 부처간, 연방지방정부간의 조정기구
  - 연방내무부 차원의 이민위원회 설치
- 독일 내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국가의 인력송출기관을 통하여 입국
-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노동자 개인이 아닌 '가족 프로젝트'로 보고 이에 대한 장기대책을 추구함
- 특히 자녀들이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, 직업교육, 언어교육을 중시
- 독일어 교육은 물론 출신 국가의 언어 교육을 통해 외국인 가족 내의 세대간 통합 및 청소년 부적응을 예방함 사회적 통합을 위해 통합을 저해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
  - 부정적인 이미지 생산이나 대중매체에서의 고정관념화 등을 경계
- 이를 위해 주거상의 통합정책 실시
  - 여기서 어머니단체와 같은 지역 사회적 차원의 노력을 강조

## ■ 일본

- 한국과 유사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나 산업연수생제도/기능실습생제도에서 대규모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발생 않음

- '니케이진'을 도입해 사회통합을 시도
  - 이 제도의 관리창구는 5개 정부부처 공동관할임
  -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으로 간주하므로 실제 노동력 부족은 외국인 학생의 파트타임제도 및 니케이진에 대한 정주자 사증발급 제도를 통해 해소
- 지역의 규모에 따라 교사용 지도 자료 혹은 소책자를 배포하며 일본어 지도 등을 담당하는 시간강사 또는 일본어 지도 협력자 등을 배치함
- 취학 연령인데도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미취학자의 비율이 평균 28.8%
  -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 교육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

## 2. 교육격차의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

### ■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대책

#### 1) 기본 방향

- 국제사회 속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 실시
-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및 집단따돌림 예방 교육 실시
- 교원연수시 국제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다문화 이해 집단따돌림 예방 등의 교육내용 포함
-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교육 추진에 대한 장학지도 실시 및 추진실적의 학교평가 교육청평가 반영
- 결혼이민자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추진

#### 2) 주요 내용

첫째,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더불어 사는 인성교육 강화

- 유치원 및 초등 교육과정 개정시 다문화 교육요소의 반영
  - 사회, 도덕 등 관련 교과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추진



- 타문화 이해, 타인종에 대한 편견 극복 및 관용의 태도 함양
- 대학의 사회복지나 가족분야 학과의 교육과정에 결혼이민자의 인권 및 다문화관련 내용 포함 권고
- 유·초·중·고교에서 '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 교실'의 활성화 및 점진적으로 확대
  -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이 학교 수업에 참여
  - 지역문화의 밤 등 자국의 문화 소개
  - 학교에 다문화교육 담당자 배치
- 교육청 또는 학교단위로 방과 후 교육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이민자의 모국에 대한 문화배우기 및 한국어 교육 실시
  - 결혼이민자가 직접 참여하여 모국의 노래나 요리를 가르치는 등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
  - 토요 휴업일 또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활용
- 둘째,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및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실시
- 단위 학교의 책임 지도 강화
  - 국제교육 이민자 자녀 특별반 편성 운영 권장
  - 기초학력책임지도제와 연계하여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
  - 학력부진학생에 대한 방과 후 특별보충과정 운영
  - 학급담임 및 교과담임과의 결연을 통한 책임지도 강화
  - 학교단위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해 학교 적응 및 학력 향상 도모
- 교육청 중심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  -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대상 방과 후 특별교실 시범운영
  - 외부(전문)강사, 학부모, 퇴직자 자원봉사자 등 지역의 인적자원 적극 활용
  -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모델 개발

- 국가 차원의 행·재정적 지원

- 결혼이민 자녀 학습지도 우수사례 발굴보급

-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교육프로그램 개발보

급

- 중앙교수학습센터를 활용한 학습자료 및 교육정보 제공

## <집단따돌림 예방교육>

- 학급별 소집단 그룹활동 활성화
    - 집단따돌림집단폭력 역할극 하기, 집단협동 놀이 및 활동하기
    - 선생님과 비밀이야기 하기, 좌석 배치 방법의 다양화
  - 학교 및 교육청 중심 상담활동 활성화
    - 이민자 자녀 재학학교 상담실에 전문코너 설치운영
    -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상담방법에 대한 교원연수 실시
    - 지역교육청의 전문상담순회교사 활용
    - 상담자원 봉사자 및 지역사회 상담 네트워크 활용
    - 사이버 상담실 구축 운영
  - 예방 및 자정운동 유도
    - 학교축제 등을 활용한 집단따돌림 예방 관련 프로그램 운영(사례발표회, 단막극, 역할극, 영상자료 등)
      - 또래상담 등 자율적인 학생 도우미 활동 활성화 유도
      - 토론문화 조성을 통해 상호 이해 배려하는 생활태도 육성
  - 학교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
    - 도시체험 등 학교 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운영
    - 학생, 교사, 학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(개펄탐사, 뒤뜰야영, 수련캠프 등)
- 셋째, 교원연수 및 장학지도 강화
-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교육방안 교원연수 실시
    - 교원 자격연수 직무연수시 다문화 이해교육, 학습부진아 특별교육,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등 연수내용 포함
  - 장학지도 실시 및 학교평가교육청평가에 반영
    -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교육 추진에 관한 담임장학, 종합장학 실시

- 국제결혼 이민자 자녀 교육 추진 실적 학교평가 및 교육청평가 반영

## ■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대책

첫째, 한국어(KSL)반 운영 등 학교내의 교육지원을 강화 KSL(Korean as a Second Language)

-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 편성, 방과 후 한국어(KSL)반 운영 등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교육지원 활성화

- 시·도교육청 평가 시 외국인 근로자 자녀교육에 대한 지원실적을 비중 있게 반영

- 평가지표에 반영하되 모범사례 등 발굴 표창을 실시, 설치 학교에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한 학급운영비를 특별 지원

-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교육을 위한 우수교사 양성 및 유인책을 시행

- '한국어교원자격증'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외국인근로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 또는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소정의 가산점 부여

- 다양한 외국인들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 환경의 조성 및 국제이해교육을 강화

-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과 지구촌시대의 국제이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

- 안산 외국인노동자센터의 '국경없는 마을'

- 각종 문화행사 등을 통해 외국근로자가족과 주민/아동 등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

둘째, 민간주도 외국인 근로자 교육 센터 (가칭)를 운영

-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의

- 학교 밖 허브(Hub)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학교와 연계 체제를 구축

-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종교민간단체 중에서 선정(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)

- 일본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센터, 평생학습센터 등에서 일본어 및 일본 문화체득관련 강좌를 실비로 제공

- 학교교육의 준비보완 차원에서 학교적응을 위한 사전/사후 교육을 실시
  - 한글 등 기초학습, 수업에 대한 보충학습, 과제물 돕기 등 학교적응을 위한 지도 문화정체성 및 정서함양 교육 등 실시
-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정보화를 지원

셋째, 대학생 멘토 등 자원봉사자 활용을 통한 교육을 지원

-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 방문지도를 실시

- 정규학교나 교육센터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개별 상담 및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(교육청, 센터 등에 등록하여 활동하고 실소요 경비를 지원)

- 대학생 멘토링 시범운영의 확대시 대상자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포함하는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(외국어 및 한국어 전공 대학생 활용)

- 시범운영 후 성과에 따라 희망대학교와 MOU 체결 등 사업을 확대

- 일본은 의무교육기관의 외국인 자녀를 위하여 관할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자를 강사로 채용 자택방문지도 및 학교순회지도 실시

넷째,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

- 외국인 자녀 교육 담당자들의 학습 지도력 제고 및 사명감 고취 등의 교육을 통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양성

-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외국인 자녀 교육담당자, 민간운영센터 교육담당자, 자원봉사자(Social Worker)에 대한 체계적 연수를 시행

• 연수 대상자들 간의 합동연수를 통해 학교교사와 민간기관 교사와의 파트너십 구축

• '한국어교원자격'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(이수과목 및 이수시간)을 도입 연수효과를 극대화

- 한국어문법 등 한국어 교수능력 배양과 국내생활 적응을 위한 문화교육 및 상담기법 등 실제현장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

다섯째,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자녀에 대한 교육권(학습권)을 보장

• 불법체류 자녀들은 불법체류로 인한 신분상(법적지위)의 불안으로 사회생활 및 교우 관계가 위축되어 있고 학업에도 열중하지 못함

• 의무교육 학령기의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에 한해 체류자격부여 등 신분안정 보장책이 필요(관계부처와 협의 추진)

- 한편에서는 단속하면서, 다른 한편에서는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부간 정책모순의 시정이 필요

## 제5장 결론 및 제언

### 1. 결 론

#### ■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권 보장

-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
- 구체적으로
  -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적응을 위한 프로그램
  - 부부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
  -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만한 가정을 이루도록 지원해야 함

#### ■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

- 단일민족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타민족에 대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음
- 교과서를 비롯한 교재와 교사들의 태도 역시 다문화주의를 포용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'차별'과'배제' 때문에 아동들이 조기에 사회적 소외를 경험
-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합의 요청

## 2. 제 언

### ■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

- 학습부진아에 대한 특별교육 및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을 실시 및 강화
- 교원연수시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력 증진 및 집단따돌림 예방을 교육내용에 포함
  - 이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강화

### ■ 국제 이해교육의 강화

- 외국인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
  - 다양한 국제이해교육교과과정을 개발
  - 아동의 출신국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
  - 교사들의 연수과정에 다문화교육, 인권존중, 세계화와 관련된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포함
    - 다문화가정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

### ■ 다문화가정 전담부서 설치

- 다문화가정 아동의 실태를 조사하여 같은 부모 국가 출신 아동들의 만남과 상호 교류 주선
  - 부모국의 언어와 문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
  -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한국 친구들의 따돌림과 차별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며
    -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전인적인 교육의 기회 제공